

무주, 친환경농업으로 승부

친환경농업 현장세미나 개최... 친환경반딧불연합회 참석

무주군은 6일 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에서 친환경농업 현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한국농어민신문과 무주군농업기술센터가 주최·주관한 것으로 무주군 친환경반딧불연합회와 학습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정수 군수는 "친환경분야 전문가들을 모신 이 자리가 친환경농업 실천 열기를 뜨겁게 만들고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을 앞당기는 도화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군에서는 열심히 친환경농업 환경을 만들고 지원을 늘리고 농사짓는 여러분은 친환경농업실천 의지를 다지고 연구하며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이상혁 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정책 성과와 방향'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으며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안인 부회장은 '친환경농업기자재 안전사용 요령'에 대해,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김창수 기술연구과장은 '무주군 친환경농업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친환경정책, 농기자재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얻고 궁금증까지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배워야 할 것들은 그때그때 충족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농산물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불리한 농업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17년 전 무주군 친환경 반딧불 연합회를 구성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유박비료를 비롯

한 우렁이 종패와 부지포, 친환경자재가 생산을 위한 발효 조와 배양기, 효소 등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농업미생물배양시설에서 생산(연 200여 톤)한 EM과 바실러스,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해조아미노산, 클로렐라 등을 토양환경개선, 퇴비발효와 작물생육촉진, 축사환경개선, 발효사료 제조용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검사비, 친환경인증농가의 환경보전비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병행해 나가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17년 11월 현재 관내 친환경인증 농가는 36품목에 365농가 290ha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힘들다는 사과품목에서도 12농가(17ha)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길 걸으며 전북투어패스 체험

진안군 관광개발사업소 직원 20여 명, 1·3구간 걸어

진안군 관광개발사업소 직원 20여 명이 최근 2개조로 나눠 진안고원길 걷기와 전북투어패스 체험을 마쳤다.

이번 체험은 전라북도 역점사업인 '전북 1000리길'과 '토탈관광사업'을 직접 체험하면서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개발사업소 직원들은 진안고원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1구간과 3구간을 체험했다.

또한 전북투어패스 카드 1장으로 관내 자유이용시설인 작은영화관을 무료로 이용하고 점심도 특별할인으로 저렴하게 즐겼다.

이와 함께 마이산 명인명품관도 방문해 전통공예 명인들의 공예작품도 감상했다.

체험을 마친 직원들은 "관광객들에게 진안의 볼거리들을 알리고 저렴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성공개최 '축하'

결과보고회 개최... 2만여 명 방문 · 1000여명 숙박해 경제활성화 기여

진안군은 6일 제10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결과보고회와 1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강당에서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9월 성공적으로 치러진 전국대회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항로 군수와 박명석 군의장을 비롯해 대회를 함께 만든 관내 12개 마을 주민, 마을만들기 관련단체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6월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11월 TF팀 구성, 올해 2월 조직위원회 구성 등 15개월간 체계적으로 전국대회를 준비했다.

개막식, 토크콘서트, 기획 컨퍼런스, 자유주제컨퍼런스, 마을탐방, 지역탐방, 마이산탐방, 어울림한마당, 마을만들기 정책전시, 문화공연, 먹거리

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크고 작은 50여개의 세부프로그램이 26곳에서 2박 3일간 알차게 진행되었다.

군은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전국의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마을지도자, 지역주민, 전문가, 활동가, 행정담당자 등 연인원 2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최종 집계했다.

또한 참가자 중 1,000여 명이 체험휴양마을 등에서 숙박하면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정책과 마을·주요 관광지 등 홍보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개막식과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 토크콘서트 등에 정부측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 하병필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 하승창 청와

대 사회혁신수석과 하병필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열매영인 수원시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 김생기 정읍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전국 40여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할 정도로 마을만들기 1번지, 진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또한 마을만들기와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기 위해 2개월간에 걸쳐 양성된 마을해설사를 13개 마을에 배치하여 마을만들기 현장을 참가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참가자들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진안=우태만 기자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 13일까지 진행

무주국유림관리소, 취약계층 17가구에 85톤 나눠줘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3일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17가구에 85톤의 땀감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숯가꾸기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목재 이용가치가 없는 나무를 수집하여 땀감으로 만들고 지원하여 소외되기 쉽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됐다.

지원 대상지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선정되었으며, 땀감으로 사용하기 좋게 잘라 국유림관리소 차량으로 직접 운반하여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저장해 드린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계기로 어려운 이웃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도 최우수'

장수군은 가정과 상가 등에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전북도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도청에서 개최되는 '저탄소생활 실천 성과보고회'에서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

100만원을 지난 5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는 에너지진단 컨설팅, 탄소포인트 가입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캠페인 등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전반에 대한 평가이다.

군에서는 10명의 에너지진단 컨설턴트의 활동과 읍·면 이장회의 시 탄소포인트 관련 내용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기종진 환경관리팀장은 "지속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 아리



장수 CYS-Net 사업운영 보고대회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5일 한누리전담 가담관 다목적실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운영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1년간 실시해 온 위기청소년 연계사업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동을 보고하고, 위기청소년 연계사업의 연대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한영희 부군수, 유기홍 장수군의회 의장, 진준호 장수경찰서장, 정동일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CYS-Net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위원,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 협약기관장, 관내 학부모, 청소년관련 유관기관 및 청소년포대상담자 등이 참석했다.

축하공연(백화여고 댄스팀)으로 시작된 사업운영보고대회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우수 공헌자시상과 2017 CYS-Net 사업운영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읍 행복센터, 이웃돕기 앞장

무주읍 행복복지센터가 추위 속에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훈훈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무주읍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과일, 두유, 쌀, 화장지 등 생활용품과 함께 평화요양원을 방문해 입소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으며, 6일에도 연탄(460장)과 이불, 난방유(30만원 상당)를 가지고 갑작스런 화재로 피해를 입은 관내 홀몸 노인 가정 등을 찾아 위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금연 성공자 만남의 날 행사

진안군은 6일 금연 성공자 만남의 날 행사를 보건소 2층 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512명 중 6개월 금연 성공자 177명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금연 성공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 서약이 이뤄졌으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금연성공 기념품도 증정됐다.

53년간 흡연하다 금연에 성공한 동향면 박천생(남, 71)씨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금연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고 금연성공 사례담을 발표하면서 군에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소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